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김대형*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Ojagyukbudo五臟六腑圖』 cited in Euibangyuchwi醫方類聚』 : A Study in Terms of Medical History Science

Kim, Dae-hyeong,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Ojagyukbudo五臟六腑圖』, cited in 『Ojangmun五藏門』 of 『Euibangyuchwi醫方類聚』, was written by Ho Eum胡愔, a woman Taoist master who lived in Dang Dynasty. She put stress on the medical theory of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of Oedansul[alchemy for immortality] which prevailed during the period of Dang, and established a medical system which was based on six viscera and entrails and combined with Taoist theories.

The major features of 『Ojagyukbudo五臟六腑圖』 can be summarized in the six-part medical system, the diagrams which describe the principles of viscera and entrails in detail, and the methods of Suyang[修養法:mental training], Tonap[吐納法:respiration] and Doin[導引法:physical training] for regulating the functions of viscera and entrails and curing diseases.

The 『Dongeuibogam東醫寶鑑』, a medical book from Joseon Dynasty, accepted the methods of Suyang and Doin, and the 『Yorayak要略』, a transcript from Joseon's later period, accepted the Taoist medicine based on six viscera and entrails, combined it with the contents of 『Dongeuibogam東醫寶鑑』, thus composing a unique medical system. Especially, the 『Yorayak要略』 is a literature important for the study of Joseon's Taoist medicine.

I. 序論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引用諸書」¹⁾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으로 그 내용은 「五藏門」내에서 소주제의 분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五藏門」에 인용된 내용을 취합하여 살펴보면, 肺·心·肝·脾·腎·膽 여섯 개의 臟腑로 이루어진 구성, 도교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臟腑圖(그림)과 장부이론, 臟腑를 조절하는 호흡법·수양법·도인법 등 한의서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섯 개의 장부로 이루어진 구성은 六腑중 膽을 제외한 小腸·胃·大腸·膀胱·三焦 관련 내용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조선의서중에서 『東醫寶鑑』의 「五臟六腑」門에 인용되어 있는 臟腑修養法과 導引法이 肝·心·脾·肺·腎·膽에만 존재하고, 명나라 주원장의 아들 朱權이 지은 『活人心』에서 보이는 臟腑修煉法이 여섯 개만 존재하며, 조선후기 필사본인 『要略』에서는 여섯 개로 구성된 장부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세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섯 장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五臟六腑圖』의 일부내용이라는 점 또한 이 문헌의 저술배경과 장부구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들은 『醫方類聚』내에서는 『五臟六腑圖』에 관련된 著者나 序文등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의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에서 太宗이 김상직에게 충주사고에 있는 『五臟六腑圖』 등의²⁾ 서적을 춘추관에 보관하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은 태종 12년인 1412년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조선의 문헌에서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등의 책이었다.……그 나머지는 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³⁾

이외의 조선의 문헌에서는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이나 유사문헌이 발견되지 않다가 도교문헌을 모아놓은 『道藏』⁴⁾에서 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던 중 『黃庭內景五藏六府圖』⁵⁾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⁶⁾에서 『五臟六腑圖』의 저자와 저술시기를 추

1) 「引用諸書」에는 黃帝內經素問, 靈樞, 運氣 五臟六腑圖 등 모두 153종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춘추관으로 옮겨진 의학에 관련된 기타 서적은 小兒巢氏病源候論, 新雕保童秘要, 廣濟方, 陳郎中藥名詩, 神農本草圖, 本草要括, 王叔和脈訣口義辨誤, 黃帝素問 등이다.

3)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 12年(壬辰) 8月 7日條」: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其餘下 春秋館藏之

4)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의 36冊으로 이루어진 『道藏』을 참고로 한다.

5) 『道藏』 4冊 修真十書 卷之五十四

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으며,⁷⁾ 이들 문헌이 동종의 모본으로부터 비롯한 내용상 동일 계통의 문헌임을 확인하게 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 대하여 도교의학적인 입장에서,⁸⁾ 여도사라는 입장에서⁹⁾ 연구하였다. 『五臟六腑圖』에 대해서는 김두중은 『五臟六腑圖』가 統一新羅時代의 고전적 전통지식을 그대로 계승한데 지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고,¹⁰⁾ 馬繼興은 『五臟六腑圖』의 판본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¹¹⁾ 黃龍祥은 『五臟六腑圖』의 臟腑圖를 인용하여 난경과 손사막의 영향을 받았다고 간략히 설명하였다.¹²⁾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五臟六腑圖』 대한 논문¹³⁾을 발표하여 著者が 胡愔이라는 것을 밝힌바가 있다. 본 논문은 胡愔의 저서를 분석하여 『五臟六腑圖』의 문헌분류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를 새롭게 추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편제를 중심으로 『道藏』 본과 비교하여 『五臟六腑圖』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五臟六腑圖』의 학술적 특징과 함께 조선의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조선에서 도교와 의학이 결합된 六府체계의 의학이 정립되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本論

1. 『五臟六腑圖』의 저자인 胡愔에 대하여

1) 胡愔에 대하여

『五臟六腑圖』의 저자는 『道藏』에 수록된 『黃庭內景五臟六腑圖』¹⁴⁾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¹⁵⁾의 내용에 의하면 당나라시대에 활동했던 여도사인 胡愔이다.¹⁶⁾ 太白山에 은거하여 도가수련을 하였으며, 도호는 ‘見素子’, ‘見素女’, ‘見素女子’이다. 胡愔이 공부한 학문의 사승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도장본의 서문을 통해서 胡愔이

6) 『道藏』 6冊

7) 『五臟六腑圖』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헌으로는 『道藏』의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黃庭遁甲緣身經』, 『四時攝生圖』, 『太上養生胎息氣經』 등이 있다.

8) 蓋建民, 『道教醫學』, 宗教文化出版社, 2001

9) 李素平, 『女神女丹女道』, 宗教文化出版社, 2004

10) 探求堂, 『韓國醫學史』, 1993. pp.151~152, 159~164 참고

11)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2) 『中國針灸史圖鑑』, 青島出版社, 2003

13) 김대형·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9/2 (통권11호), 2003

14)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序文, 『道藏』 4冊, p.835

15)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 『道藏』 6冊, p.686

16) 黃龍祥이 主編한 『中國針灸史圖鑑』(上卷, p.30)에서도 胡愔을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보고 있다.

어려서부터 玄門(道家)을 좋아하여 마음을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담담하게 길렀고, 『黃庭經』의 이치를 연구하고 碧簡(옥돌과 죽간)에 남겨진 글을 몇 년동안 연구했음을 밝히고 있다.¹⁷⁾ 또한 도가수행을 설명할 때에 먼저 臟腑에 대한 의학이론을 먼저 밝히고 있고,¹⁸⁾ 方書에 관련된 저술¹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학에 대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胡愔의 저서에 대한 분석

『道藏』, 『中國醫籍通考』와 『新唐書』, 『宋史』, 『通志』, 『陝西通志』, 『崇文總目』, 『四庫全書 緯略』, 『道藏目錄詳註』 등의 史料를 통해서 胡愔의 저서를 출전문헌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출전문헌별 著書

출전문헌	著書	문헌분류 ²⁰⁾
新唐書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	道家類
宋史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道家附釋氏神仙類
	『胡愔補瀉內景方三卷』, 『黃庭五藏六府圖一卷』	醫書類
通志	『黃庭五藏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藏六府圖一卷』,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一卷』	道家
	『胡愔方二卷』	醫方類 方書
陝西通志	『黃庭五臟六腑圖』	子類
崇文總目	『黃庭內景五臟六府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醫書類
	『黃庭內景圖一卷』 闕, 『黃庭外景圖一卷』 闕	道書類
緯略	『黃庭內景五藏六府圖 · 補瀉圖』	
道藏目錄詳註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中國醫籍通考	『胡愔方二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 『補瀉內景方三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一卷』, 『黃帝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圖』, 『黃庭五藏內景圖』	

17)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서문 : 愔夙性不敏 幼慕玄門 鍊志無爲 棲心澹泊 覽黃庭之妙理 窮碧簡之遺文 焦心研精 屢更歲月

18)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서문 : 先明臟腑 次說修行

19) 『胡愔方二卷』

20) 『舊唐書卷四十七 經籍志第二十七』에서는 儒家類一, 道家類二, 法家類三, 名家類四, 墨家類五, 縱橫家類六, 雜家類七, 農家類八, 小說類九, 天文類十, 曆算類十一, 兵書類十二, 五行類十三, 雜藝術類十四, 事類十五, 經脈類十六, 醫術類十七 17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明史卷九 志第七十四 藝文三』에서는 子類 一曰儒家類, 二曰雜家類, 三曰農家類, 四曰小說家類, 五曰兵書類, 六曰天文類, 七曰曆數類, 八曰五行類, 九曰藝術類, 十曰類書類, 十一曰道家類, 十二曰釋家類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著書의 서명분석을 통한 분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서문에서 “먼저 장부를 명확히 알고난 다음에 수행을 설명한다. 아울러 病源과 吐納으로 질병을 제거하는 法을 인용하였고, 또한 藥理와 導引屈伸, 察色尋證, 月禁食忌 등을 나열한다.”²¹⁾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가수련보다 의학이론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문헌인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것과 方書의 성향이 드러나는 저술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도교문헌인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著書

書名에 있어서 黃庭·內景·外景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것은 『黃庭經』의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黃庭의 오묘한 理致를 연구하였다”²²⁾고 밝힌 것을 저술서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五臟六腑와 內景이란 용어를 통해서 호음은 외단쪽보다는 인체 내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황정경과 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황정경의 영향을 받은 저술을 크게 內景에 관련된 문헌과 外景에 관련된 문헌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內景과 外景에 대하여 胡愔보다 앞선 시기에 살았던 梁丘子²³⁾가 저술한 『黃庭內景玉經註』²⁴⁾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黃이란 中央의 색이며 庭이란 四方의 中央이다. 밖으로는 天中, 人中, 地中을 가리키고, 안으로는 腦中 心中 脾中을 가리키므로 黃庭이라고 한다. 內는 心이고, 景은 色象이다. 外로는 日月 星辰 雲霞의 형상에 비유하고 內로는 筋骨 藏府의 형상에 비유한다. 心이 身內에 居하고 있으면서 一體의 形象과 色을 보게 되므로 內景이라 말한다.²⁵⁾

內를 筋骨 藏府의 형상에 비유하므로 內景은 筋骨과 藏府를 모두 포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內景이 藏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도 호음이 저술한 書名에서 內景과 五臟(五臟)과 六腑(六腑)를 같이 언급한 것은 오장과 육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內景과 오장만 언급한 서명은 오장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

21) 先明臟腑 次說修行 并引病源 吐納除疾 旁羅藥理 導引屈伸 察色尋證 月禁食忌

22)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서문 : 覽黃庭之妙理

23) 梁丘子の 원명은 白履忠으로 출생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729년에 죽었다. 그의 저서중에서 『老子注』, 『三玄精辯論』은 이미 망실되었고, 『黃庭內景玉經註』, 『黃庭外景玉經註』는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 (胡孚琛主編, 『中華道教大辭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p.96 참고)

24) 道藏4冊, 梁丘子 撰

25) 黃者 中央之色也 庭者 四方之中也 外指事 卽天中 人中 地中 內指事 卽腦中 心中 脾中 故曰黃庭 內者 心也 景者 色象也 外喻 卽日月 星辰 雲霞之象 內喻 卽 筋骨 藏府之象也 心居身內 存觀一體之象色 故曰 內景也.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명에 內景이란 명칭과 더불어 오장과 육부를 같이 언급하였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內景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女子胡愔黃庭內景圖』, 『胡愔黃庭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五臟內景圖』 등을 內景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문헌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黃庭外景圖』에서는 身外の 天文이나 地理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外景은 인체를 ‘日月 星辰 雲霞’의 형상에 비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黃庭外景玉經』²⁶⁾이 藏府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적고, 장부이외의 인체부위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黃庭外景圖』는 다르게 분류하여야 한다.

② 方書의 성향이 드러나는 著書

표.1에서 『胡愔方』은 문헌분류중에서 醫方類의 方書에 속하여 처방을 기록한 문헌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胡愔補瀉內景方三卷』은 醫書類에 속하여 있다. 여타의 문헌과 다르게 서명에서 方書를 의미하는 ‘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書名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五臟六腑圖』의 각 臟腑圖에 처방²⁷⁾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방서에 관련된 전문의서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著書의 주제별 분류

분류	著書
方書관련문헌	『胡愔方二卷』, 『補瀉內景方三卷』
內景관련문헌	『女子胡愔黃庭內景圖』, 『胡愔黃庭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五臟內景圖』
外景관련문헌	『黃庭外景圖』

(2) 문헌분류를 통해 살펴본 『五臟六腑圖』의 특징

표.1을 보면 문헌분류에서 나타나는 저서들이 크게 醫書類와 道家類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醫書類에 속하는 문헌은 『胡愔補瀉內景方三卷』, 『黃庭五臟六腑圖一卷』, 『胡愔方二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闕』, 『黃庭外景圖一卷』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黃庭五臟六腑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闕』, 『黃庭外景圖一卷』같은 경우는 道家類에 속해 있는 문헌도 있다.

26) 道藏4冊, 梁丘子 撰

27)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는 膽藏圖를 제외한 臟腑에서 排風散, 五參丸, 升麻散, 訶梨勒丸, 八味腎氣丸등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그의 저서들이 후대에 道家類와 醫家類에 모두 속하게 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道家와 醫學을 결합한 형태의 도교의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五臟六腑圖』의 이종본인 『黃庭內景五臟六腑圖』라는 문헌에 대해서 『通志』에서는 道家類에 속하고 『崇文總目』에서는 醫書類에 속해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볼 때 『五臟六腑圖』가 『醫方類聚』에서 道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養性門」이 아니라 「五臟門」에 인용되어 있는 이유는 『醫方類聚』의 편찬자들이 臟腑와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보다 더 중시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醫方類聚』의 「養性門」에 인용되어 있는 『修真秘訣』이 『五臟六腑圖』의 臟腑修養法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五臟門」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 『五藏六府圖』의 저술시기

『醫方類聚』에는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다른 문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道藏본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²⁸⁾에 저작시기를 ‘時大中二年戊辰歲述’이라고 明記하고 있어서 간접적나마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大中은 당나라 宣宗²⁹⁾의 年號로서 大中2년은 서기848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五臟六腑圖』의 저작시기를 848年무렵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道藏本의 저술시기인 848年과는 다른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본의 불교관련 서적인 『大正新修大藏經』의 『惠運律師書目錄』³⁰⁾에는 『五臟六腑圖』와 동일서명으로 추정되는 『五藏六府圖』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惠運律師書目錄』에는 불교에 관련된 서적이 주가 되지만 『道性歌一卷』, 『老子首胤內解道經一卷』, 『養性一卷』, 『婆羅門自按摩法一卷(凡十八契)』 등과 같이 도가수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惠運律師書目錄』은 일본 승려인 惠運이撰한 것으로 842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847년에 일본으로 돌아오면서³²⁾ 가져온 문헌을 기록한 것이다. 이 목록에 기재되어

28) 『道藏』 6冊

29) 재위기간 : 847-859

30) 大正一切刊行會, 大正新修大藏經, 제 55권 목록부, 惠運 撰, 「請來經儀軌等合二百二十二卷, 新來七十六卷」 1928, 교재간행위원회 영인, 1984

31)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내에서도 臟과 藏, 腑와 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또한 도장본의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및 胡愔의 저작서명을 비교해 보아도 ‘藏府’에 ‘月’이 붙어 있느냐의 여부가 서로 다른 문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동일서명으로 추정한다.

32)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권덕영, 일조각, 2005, p.184)에 의하면 “혜운이 쓴 「안상사가람연기자재장(安祥寺伽藍緣起資材帳)」에 의하면, 842년 5월에 그는 대재부 박태진(博太津), 곧 박다진(博多津)에서 당 상인 이처인(李處人)의 배를 타고 비전국(肥前國) 송포군(松浦郡)을 거쳐 당 온주(溫州) 낙성현(樂城縣) 옥류진(玉留鎭)에 도착했다고 한다.…… 847년 6월에는 장우신(張友信)과 원정(元靜)의 상선이 승려 인호·혜악·혜운, 상인 춘태랑(春太郎)·신일랑(神一郎) 등 47명을 태우고 명주(名州)를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였고,……”라고 하여 惠運이 당으로의 출국시기와 일본으로의 입국시기를 밝히고 있다.

있는 서적이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점과 그와 동시대에 쓰여진 도장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 유사한 서명이라는 점을 볼 때 『五藏六府圖』는 『五臟六腑圖』의 모본이거나 또는 동일한 모본에서 나온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혜운이 귀국한 것은 847년 6월로 道藏에서 언급한 대증2년인, 848년보다 시기가 앞서므로 도장본의 母本이거나 異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증2년보다 이른 시기에 다른 異本이 존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당나라에서는 대증2년에 도장본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醫方類聚』의 『五藏六府圖』의 저작시기는 도장본보다 앞선 847년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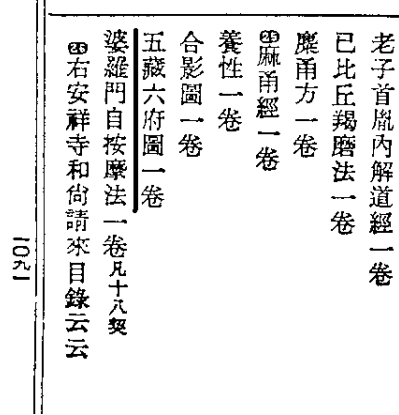


그림1. 惠運律師書目錄의 五藏六府圖

2. 『五臟六腑圖』와 『道藏』본의 비교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91門중에서 「五臟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들은 주제별로 「五臟門」 나누어져 있어³³⁾ 전체적인 면모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앞에서 언급한 『道藏』본인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의 편제와 내용을 비교하여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판본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추후 『五臟六腑圖』의 원모를 복원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 『五臟六腑圖』가 인용되어 있는 『醫方類聚』 「五臟門」의 특징

「五臟門」은 전체 266卷으로 구성된 『醫方類聚』중에서 卷之四에서 卷之十二까지 9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醫方類聚』의 凡例³⁴⁾에 의하면 모든 門이 理論, 方藥, 食治, 禁忌, 導引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鍼灸항목이 더 포함되어 있으므로 理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門」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醫方類聚』 「五臟門」의 구성과 권별 인용문헌

五藏門의 구성	五藏門(卷之數)	인용문헌
---------	----------	------

33) 안상우, 『醫方類聚』의 의과학적 연구, 2000, p.32 참고

34) 一. 諸門內論及藥畢書後 繼書食治 禁忌 導引 (『醫方類聚』 · 凡例)

理論	五藏門 一(四)		五臟論,金匱方,巢氏病源,千金方
	五藏門 二(五)		千金方,五臟六腑圖,聖惠方,簡要濟衆方,三因方,簡易方
	五藏門 三(六)		簡易方 二,直指方,儒門事親,聖濟總錄,永類鈴方
方藥	五藏門 三(六)		金匱方,千金方,五臟六腑圖
	五藏門 四(七)		聖惠方
	五藏門 五(八)		聖惠方 二
	五藏門 六(九)		聖惠方 三
	五藏門 七(十)		簡要濟衆方,大全本草,三因方,神巧萬全方,嚴氏濟生方,聖濟總錄 一
	五藏門 八(十一)		聖濟總錄 二
	五藏門 九(十二)		聖濟總錄 三,拔粹方,醫方大成,袖珍方,永類鈴方,新效方
食治	五藏門 九(十二)	五臟食治	千金方,神巧萬全方,壽親養老書
禁忌	五藏門 九(十二)	五臟禁忌	千金方,五臟六腑圖
鍼灸	五藏門 九(十二)	五臟鍼灸	千金方,神巧萬全方
導引	五藏門 九(十二)	五臟導引	巢氏病源,五臟六腑圖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五藏門」을 나누어 보면, 五藏門 一·二·三은 理論에 해당하고, 五藏門 三·四·五·六·七·八·九는 方藥에 해당하고, 食治·禁忌·鍼灸·導引은 모두 五藏門 九에 포함되어 있어서 범례에서 말한 理論, 方藥, 食治, 禁忌, 導引의 구성체계에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구성별로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理論에는 五臟論, 金匱方, 巢氏病源, 千金方, 五臟六腑圖, 聖惠方, 簡要濟衆方, 三因方, 簡易方, 直指方, 儒門事親, 聖濟總錄, 永類鈴方으로 되어있고, 方藥에는 金匱方, 千金方, 五臟六腑圖, 聖惠方, 簡要濟衆方, 大全本草, 三因方, 神巧萬全方, 嚴氏濟生方, 聖濟總錄, 拔粹方, 醫方大成, 袖珍方, 永類鈴方, 新效方으로 되어 있고, 食治에는 千金方, 神巧萬全方, 壽親養老書으로 되어 있고, 禁忌에는 千金方, 五臟六腑圖, 鍼灸에는 千金方, 神巧萬全方으로 되어 있고, 導引에는 巢氏病源과 五臟六腑圖로 되어 있다. 『醫方類聚』의 凡例에는 문헌을 인용할 때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世代의 先後에 따라서 門을 나누어 編入시키라는 것이다. 「五藏門」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을 『醫方類聚』·「引用諸書」와 비교해보면 순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³⁵⁾ 「五藏門」에도 일관된 편집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위의 표에서 卷之十二중 「五藏導引」에 대해 상술해보면, 그 내용은 『巢氏病源』과

35) 「五藏門」의 인용문헌을 「引用諸書」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五臟論, 金匱方, 巢氏病源, 千金方, 五臟六腑圖, 聖惠方, 簡要濟衆方, 大全本草, 三因方, 神巧萬全方, 簡易方, 仁齋直指方, 嚴氏濟生方, 儒門事親, 聖濟總錄, 拔粹方, 醫方大成, 新效方

36) 안상우는 상계서, pp.39~40에서 “세대선후를 단순히 편찬시기 혹은 간행연도로 일괄하여 고찰하거나 인용체서를 단순히 참고문헌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醫方類聚』에 수록된 인용서의 게재 원칙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도 약간 오차가 있으나 각 문 내에 상기 내용별 분류에 따라 대체적인 원칙으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五臟六腑圖』에서 臟腑와 관련된 導引法과 修養法을 취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巢氏病源』의 내용은 「肝病候」, 「心病候」, 「脾病候」, 「肺病候」, 「腎病候」, 「膀胱病候」, 「五藏橫病候」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諸病源候論』 「卷之五 五臟六腑病諸候」의 내용전체를 인용한 것이다.³⁷⁾

『五臟六腑圖』의 내용은 「肺藏修養法」, 「心藏修養法」, 「肝藏修養法」, 「脾藏修養法」, 「腎藏修養法」, 「膽藏修養法」, 「五臟六腑圖文備記」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六腑圖』를 『巢氏病源』의 내용과 연계해서 보면 「五藏導引」이라는 소제목이 五臟에 관련된 導引法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를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렇듯 세부적인 사항은 타 문헌과 연계가 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醫方類聚』의 장점이다.

하지만 각 문헌별로 「五藏門」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五藏門」의 순서에 따라 취합해보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五臟六腑圖』를 예로 들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五藏門 二, 五藏門 三, 五藏門 九에서 理論, 方藥, 禁忌, 導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각 「五藏門」에 인용되어 있는 『五臟六腑圖』의 내용을 소제목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보면, 「五藏門二」에는 肺·心·肝·脾·腎·膽 여섯 개의 臟腑에 관련된 장부이론과 臟腑圖(그림)과 각 장부의 병을 망진을 통해서 진찰하는 相法(예: 相肺藏病法), 배꼽주위의 動氣로 병을 진단하는 病證(예: 肺病證)으로 구성되어 있고, 「五藏門三」에 장부를 치료하는 약물 처방을 기록하고 있고(예: 治肺藏病方), 「五藏門九」에서는 각 臟腑에 해당하는 계절별 약물금기와 장부를 다스리는 修養法, 吐納法, 導引法 및 五藏六腑圖文備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오장문별로 살펴보았듯이 각 주제별로 해당내용을 총괄적으로 알기는 쉽게 되어 있지만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쉽지가 않다. 이것은 역대 여러 의가의 의방서를 수집·분류하여 편별로 내용을 나눈 『醫方類聚』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³⁸⁾ 따라서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道藏』 본인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 『五臟六腑圖』와 『道藏』 본과의 편제비교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의 목차와 내용의 흐름을 근간으로 『五臟六腑圖』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肺藏圖」의 내용을 재배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나머지 臟腑는 「肺藏圖」의 편제와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먼저 전체적인 편제를 살펴보면, 『黃庭內景五藏六府圖』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序文이 있고, 肺藏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病肺藏方(消風散), 導引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肺藏圖(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五藏圖文備記」와 「元始太玄經曰」로 이루어져 있다.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편제가 완전하게 구분되어져 않은데, 相肺藏病

37) 남경중의학원교석, 『諸病源候論校釋』 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468~1476 참고

38) 안상우·최환수, 『醫方類聚』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1. 참고

法에는 肺病證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할 내용이 섞여 있고, 治病肺藏方에는 吐納法과 忌食法으로 구분되어야 할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표 4. 『道藏』 본과 『五臟六腑圖』의 편제비교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五臟六腑圖
序文	序文	序文없음
肺藏論 ³⁹⁾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病肺藏方(消風散) 導引法	肺藏圖(그림) 肺藏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肺六氣法 月禁食忌法 肺藏導引法	肺藏論 肺藏圖(그림) 相肺藏病法 治肺藏病方(排風散) 五藏禁忌(肺藏) 肺藏修養法 治肺藏吐納用咽法 肺藏導引法
心藏圖	心臟圖	心臟圖
肝藏圖	肝臟圖	肝藏圖
脾藏圖	脾臟圖	脾藏圖
腎藏圖	腎臟圖	腎藏圖
膽藏圖	膽腑圖	膽藏圖
五藏圖文備記 元始太玄經曰	釋音	五臟六腑圖文備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는 序文, 肺藏圖(그림), 肺藏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肺六氣法, 月禁食忌法, 肺藏導引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肺藏圖(그림)이 존재한다. 마지막은 釋音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른 문헌과 다르다. 釋音은 ‘臙’, ‘欬’, ‘瘵’, ‘齟’에 대하여 음과 뜻을 풀이하였는데, 예를 들면 瘵에 대하여 ‘발음은 加이고, 病이다(音加病也)’라고 풀이하였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를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비교해볼 때 장부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분량정도가 적는데, 그 이유는 이 문헌의 말미에 써놓은 ‘요점만 취하여 요약한 것이다.’⁴⁰⁾ 하는 저자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편제가 완전하게 구분되어져 않은데, 相肺藏病法에는 排風散方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할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五臟六腑圖』는 의방유취에 인용된 순서대로 보면 肺藏論, 肺藏圖(그림), 相肺藏病法, 治肺藏病方, 五藏禁忌(肺藏), 肺藏修養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이 없고, 肺藏圖(그림)이 있다. 마지막은 「五臟六腑圖文備記」로 되어 있다. 相肺藏病法에는 肺病證⁴¹⁾의

39) 원래 肺藏論이란 소제목은 없으나 내용이 肺藏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삽입하였다. 나머지 두 문헌도 같은 방식으로 명명하여 기입하였다.

40) 이상의 五臟六腑圖는 그 요점만 취하여 요약하였으므로 글이 부족하다. 찾아보는 사람은 헤아리도록 하라. (右五臟六腑圖 取其要者 略之 故文不足 尋者數之)

41) 원문에는 <肺病證>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相肺藏病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臟腑에

항목으로 구분되어져야 할 내용이 섞여 있다.

이상과 같이 세 문헌을 비교해볼때 편제가 모두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五臟六腑圖』가 서문이 없고 소제목이 약간 다른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글의 구성과 내용 및 분량이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유사하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는 臟腑圖(그림)을 포함하고 있고 편제가 두 문헌과 유사하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상이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道藏』本의 내용과 편제를 서로 참고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臟腑圖(그림)-臟腑論-修養法-相臟腑病法-呼吸法-禁忌法-導引法의 순서로 정리가 될 수 있으나, 추후에 『五臟六腑圖』의 원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불완전한 편제를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⁴²⁾

3) 편제비교를 통해 살펴 본 『五臟六腑圖』의 특징

도장본의 편제와 원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五臟六腑圖』가 서문이 없는 것⁴³⁾과 도장본에는 없는 내용⁴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외에 原文과 注가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原文과 注가 분리되어야만 원저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肺藏圖」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五臟六腑圖』는 『道藏』本과 내용상 거의 일치하나, 『五臟六腑圖』에서는 原文과 注가 구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本一居上對胸有六葉 色如縞映紅(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에서 괄호안에 있는 내용이 注로 되어 있어서 괄호안의 내용이 원문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는 原文과 注가 뒤섞여 “本一居上對胸有六葉 色如縞映紅 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라고 되어 있어서 연구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고 원저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청대의 『古今圖書集成』⁴⁵⁾에서도 『五臟六腑

는 <心病證>, <脾病證>, <腎病證> 등으로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다.

42) 일례로 『黃庭內景五臟六腑圖』, 「肺藏圖」의 편제는 肺藏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病肺藏方(消風散), 導引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장부의 편제와 비교하여 재구성해보면 肺藏論, 修養法, 相肺藏病法, 【肺病證】, 治病肺藏方(消風散), 【肺藏吐納法】, 【忌食法】, 導引法 의 순으로 재편할 수 있다.

43) 『五臟六腑圖』에는 서문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서문이 없는 판본을 참고한 것이거나 의방유취가 91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헌에서 해당내용만 취하여 서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안상우의 논문중 “『醫方類聚』가 단순히 인용서를 적당히 편제한 것이 아니라, 인용서와 원서 및 參校書를 대조한 후 교감작업과 내용분석에 의한 발취·산삭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상계서, p.48)는 것을 참고하면 의방유취에서 오장육부도가 산재되어 있거나 서문이 없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4)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현묘함을 믿지 않고 진리를 헐뜯으니 참으로 슬프게도 스스로 해를 당하는구나. 간혹 담력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요괴스럽거나 非常한 靈을 만나면 눈을 크게 뜨고 이를 간다. 神이 강하고 바른 사람이면 반드시 冥神을 굴복시킬 것이니 어찌 神氣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어찌 이것을 믿지 않는가! 무릇 이빨두드리기(叩齒)는 진신의 斃氣를 없애는 것이며, 침을 양치질하는 것은 六腑의 精을 보익한다. 이것도 또한 補하는 것이니, 직접 호흡하는 것만이 補寫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따름이다. (夫愚夫庸士 不信玄妙 謾其真理 深可悲哉 自取傷毀 倘有一夫有膽氣 忽遇妖怪 非常之靈 則勞目切齒 神強正者 必伏冥神也 豈非神氣之用哉 何不信之 凡叩齒爲抽一身之斃氣 漱泉爲補益六腑之精 此亦爲補也 非直噓吸 獨稱補寫耳)

圖』의 영향을 받은 문헌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肺臟圖說」중 관련내용을 찾아보면 「居上對胸有六葉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라고 하여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같이 원문과 주가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의 원문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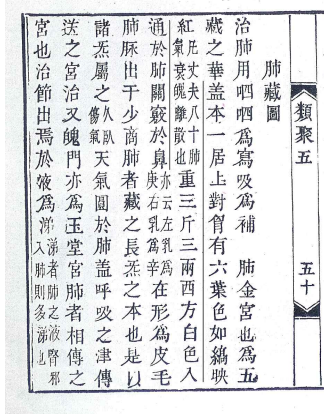


그림2. 醫方類聚의 肺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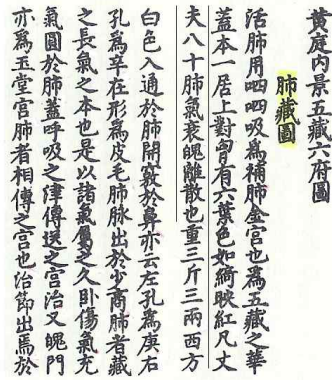


그림3.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肺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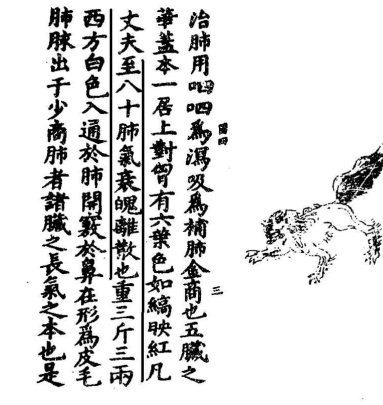


그림 4.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의 肺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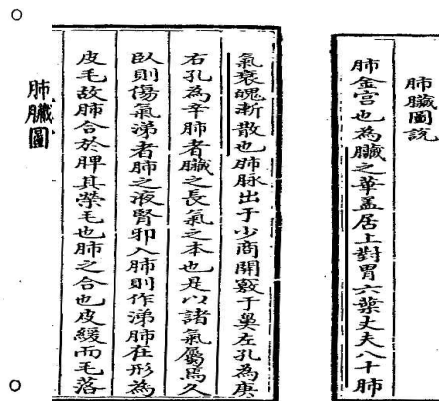


그림 5. 古今圖書集成의 肺藏圖說

45) 이 책의 정식명칭은 『欽定古今圖書集成』으로 황제가 친히 명령하여 고금의 모든 도서를 모아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대략 康熙帝 때의 陳夢雷(1651~1723)가 시작한 것을 雍正帝 때 蔣廷錫(1669~1732)이 이어받아 1725년에 완성하였다. 총 권수 1만 권, 목록 40권, 약 1억5천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永樂大典』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完整無缺하다는 점에서는 현존하는 동양 최대의 백과전서로 손꼽히며, 당시에는 이를 類書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類書로 꼽히는 『太平御覽』, 『冊府元龜』, 『淵鑑類函』 등의 실제 분량을 따져보면 『圖書集成』의 불과 10/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은 삼라만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서를 6회편으로 나누어 처음 三編은 천지인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天文을 기록한 歷象彙篇, 지리·풍속의 方輿彙篇, 제왕·백관의 기록인 明倫彙篇, 의학·종교 등의 博物彙篇, 문학 등의 理學彙篇, 과거·음악·군사 등의 기록인 經濟彙篇 등의 6회편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32典 6,109部로 세분하였다. 각 부는 彙考·總論·圖表·列傳·藝文·選句·紀事·雜錄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부집성해제, 2002, pp.9~10)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의방유취에서 참고한 판본이 도장본보다 더 앞선 시기의 것이거나, 혹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안⁴⁷⁾은 “『醫方類聚』 총론의 내용 편집은 인용문의 선정, 발췌 및 삭제, 해당 내용의 대조를 통한 교감과 추록, 주석, 인용문의 도해화 및 요약 정리, 분류 취합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醫方類聚』의 편저자는 인용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감하여 원저자의 원의와 논지를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五臟六腑圖』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정확한 판본을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으로 된 문헌이 조선에 있었으며, 중국의 사서를 비롯한 여타 문헌에서도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술된 초기에 다른 나라로 전래되고 사라진 판본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원문과 주가 분리되지 않은 판본은 후대의 연구에 영향을 미쳐서 연구자로 하여금 글을 誤讀케 하여 옳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그 연구성과를 읽는 독자들도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盖建民의 『道教醫學』⁴⁸⁾과 李素平의 『女神女丹女道』⁴⁹⁾에서 도장본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를 연구하면서 원문과 주가 구분되지 않은 「心臟圖」의 내용을 인용하여 독자가 원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혼동을 주고 있다.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는 “色如縞映絳，形如蓮花未開之狀（凡丈夫至六十，心氣衰弱，言多錯忘也）”라고 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폐장도의 내용과 같이 原文과 注가 분리되어 있다.

셋째로 『道藏』본이나 『古今圖書集成』을 저본으로 하여 연구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오류를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五臟六腑圖』를 참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간의 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또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五臟六腑圖』의 학술적 특징과 조선의학에 대한 영향

1) 당나라때 유행한 외단술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장부이론 강조

호음이 살았던 당나라는 外丹의 부작용에 의해서 天子⁵⁰⁾와 지식인⁵¹⁾들까지 중독되어

46) 도장본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가 포함되어 있는 문헌은 修真十書로 編者が 밝혀져 있지는 않으며, 저술시기는 송나라 말과 원나라 초에 지어진 것으로 본다. (胡孚琛主編, 『中華道教大辭典』, p.384참고)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五臟六腑圖』와 修真十書에 포함되어 있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를 동시에 비교해보고 판본이 더 좋은 『五臟六腑圖』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본다.

47) 안상우, 상계서, p.62

48) pp.127~128

49) pp.371~372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폐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外丹術이나 內丹修煉이나 모두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장생을 바라는 것은 모두 추구하는 것이지만 당나라는 外丹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이르렀다. 『五臟六腑圖』의 서문이 쓰여진 시기인 당나라 宣宗(846~859)과 前王인 武宗(842~846)이 外丹藥⁵²⁾을 먹고서 중독되어 죽었다는 것은 당시 외단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호음은 서문에서 金丹에 의지하지 않더라도⁵³⁾ 신선의 경지⁵⁴⁾에 오를 수 있으므로 밖

50) 『도교란 무엇인가』 (최준식 옮김, 민족사, 1991, pp.253~254)에서는 太宗, 憲宗, 穆宗, 敬宗, 宣宗 등 唐 天子들의 中毒死와 사회에 만연해진 수은중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례로 호음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나라 15대 武宗과 16대 宣宗의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대 武宗(재위 840-846)은 열렬한 도교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웅성의 극에 달했던 불교에 대한 탄압을 가했는데 이 탄압사건을 그 연호인 會昌 5년(845)에 따라 會昌의 폐불이라고 한다. 『新唐書』 武宗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회창 6년 3월, 壬寅日, 황제는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하였는데, 희로의 감정이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10일 동안이나 말을 못 했다. 채상 李德裕 등이 알현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궁중 안팎에서 황제의 안부를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인심은 흉흉해져만 갔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황제는 죽고 皇太叔 光王이 관 앞에서 즉위했다. 이때 붕어한 황제의 나이는 23세였다.’ 고 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초조라든가 기쁘고 슬픈 감정의 상실증세도 현종의 경우와 같다. 다음으로 16대 宣宗(재위 846-859)도 금단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집하였다. 선종은 李玄伯이 조제한 장생약을 복용하고 疢 (악성종양)가 등에 나고, 조갈과 초조와 같은 수은중독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51) 『도교란 무엇인가』 (p.254)에서 『한유가 본 수은중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유(768~824, 字는 退之)는 당의 문호로 유명하며, 유교를 숭상하여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다가 좌천된 일이 있으며, 古文의 부흥자로도 이름이 높다. 그의 형의 장인이자 태학박사인 李于가 유필에게서 약법을 배우고 단약 중독으로 사망했음……이때 한유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故太學博士李君墓誌銘’을 기록하여, 그안에 그가 보고 들은 수은 중독자 8명의 예를 기록해 두었다. 첫 번째 李于의 경우는 주로 혈변을 보고 병상에서 4년간 고생하다가 長慶 3년(823)에 사망했다. 두 번째 歸翬은 《신·구당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문학과 서도에 뛰어난 사람인데 수은을 마시고 병을 얻어 십수년 간 피를 토하다가 현종 元和 15년(820)에 67세로 사망했다. 세 번째 李虛中은 수은을 황금화한다는 도사의 말을 믿었다가 등에 종양이 나서 사망했다. 이때가 원화 8년(813)이었다. 네 번째 李遜은 죽음에 임하자 한유에게 자기는 약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경 3년(823)에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다섯 번째 李健은 이손의 동생으로 형보다 1년 빠른 장경 2년(822)에 사망했다. 여섯 번째 孟簡은 吉州司馬로 좌천당한 사람인데, 한유가 원화 15년(820)에 袁州(강서성)에서 우연히 마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약을 주며 그것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병으로 사망했다. 장경 3년(823)이었다. 일곱 번째 盧坦은 피오줌과 근육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원화 12년(817)이었다. 끝으로 李道古는 유필을 현종에게 추천했던 사람으로 현종의 사후에 循州에 유배되었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때 나이는 50세였다. 이상의 8명은 현종 원화년간이나 목종 장경년간에 사망했으며 한유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52) 대표적인 예로 寒食散을 들 수 있다. 오석산이라고도 하며, 다섯 藥石(종유석, 주사, 적석지, 자석영, 유황)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진 시대(3,4세기)에는 귀족들 사이에 오석산을 먹는 것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노신의 <魏晉의 시대상과 문학>속에서, 오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석산을 먹은 후에는 자꾸 걸어나야 한다. 걸어야만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散發’이라고 한다. 산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산발하는 것을 ‘行散’이라고 한다. 또 이 약을 먹은 후에는 냉수를 온몸에 뿌리고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寒食散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 하나의 예외는 뜨거운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 방법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도교란 무엇인가』, pp.266~267)

53) 이러한 때에 이르면 金丹을 빌리지 않더라도 玉液 琅玕이 크게 돌아 자연스럽게 神化하여 冲虛하게 되고 氣가 太和와 합치되어 雲漢에 오르게 된다. (至此之時 不假金丹 玉液琅玕大還 自然神化冲虛 氣合太和而升雲漢)

에서 구하지 말 것⁵⁵⁾을 당부한 것은 당나라에서 만연해있는 외단의 부작용에 대하여 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수행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외단술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서 외단에 빠지지 말고 인체에 대한 의학공부를 바탕으로 두고 수행할 것을 후학들에게 강조하여 서문에서 “먼저 장부를 명확히 밝히고, 다음에 수행을 설명한다.”⁵⁶⁾고 말하고 있다. 『五臟六腑圖』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부를 다스리는 처방약물 구성에서도 외단약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과 修養法·導引法·吐納法을 통하여 臟腑의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臟腑이론을 중시하게 된 데에는 당나라때의 도가수행풍의 영향이 크다. 저자인 胡愔이 활동했던 당나라때에는 외단술의 폐해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죽기도 했지만, 반면에 내단수련은 의학과 결합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盖建民은 도교와 의학이 결합되는 상황을 “隋唐시기에는 도교와 의학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에는 주로 두 방면의 推動原因이 있다. 하나는 도교의 修仙하는 방식이 전환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道家를 수련하는 자들이 빈번히 ‘醫를 가지고 道教에 入門(援醫入道)’하여 道法과 醫理가 결합하게 되었다. 또 다른 방면은 道教醫學의 養生方法이 발전되고 완전해져서 임상치료에 있어서의 가치와 양생보건의 意義가 날로 늘어나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의학계인사들에게 흥미와 중요성을 불러일으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道를 가지고 醫學에 入門(援道入醫)’하여 적극적으로 道教醫學과 그 養生方法의 精華를 취하여 의약방서를 받아들이고 아울러 임상치료와 일상생활의 보건에서도 응용하게 되었다.”⁵⁷⁾고 언급하고, 盖建民은 醫를 가지고 道教에 입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 『五臟六腑圖』의 저자인 胡愔을 꼽고 있다.

이렇게 臟腑이론을 중시했던 내용은 『五臟六腑圖』가 의방유취에 인용될때 「養性門」이 아닌 「五臟門」에 속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2) 도교의 ‘六府’체계와 의학의 결합

『五臟六腑圖』의 서명의 의미를 『黃帝內經素問』의 내용⁵⁸⁾을 따라 풀이해보면 “五臟(五藏)인 肝·心·脾·肺·腎과 六腑(六府)인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 11개 臟腑에 대한 그림(圖)”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五臟六腑圖』는 肺·心·肝·脾·腎·膽 6개의 臟腑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五臟六腑圖』가 원본은 11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었는

54) 그러한 후에 五臟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면 안으로 비리고 썩은것(腥腐)을 받더라도 모든 독이 침범할 수 없으며, 밖으로 질병을 만나더라도 모든 기가 손상되어질 수가 없어서 聰明하고 純粹하며 늙음을 물리쳐 생명을 연장하여서 志高한 神仙이 되어 形이 노곤하거나 피로하지 않게 된다. (然後五臟堅強則內受腥腐 諸毒不能侵 外遭疾病 諸氣不能損 聰明純粹 却老延年 志高神仙 形無困疲)

55) 이로써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고스럽게 밖에서 구하나 실제로는 生之道를 아는 것이 아니다. (是以不悟者 勞苦外求 實非知生之道)

56) 先明臟腑 次說修行

57) 『道教醫學』, pp.123~124

58) 『黃帝內經素問』 「金匱真言論篇 第四」: 肝心脾肺腎五藏, 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府, 皆爲陽.

데 나머지 장부인 나머지 胃·大腸·小腸·膀胱·三焦에 관련된 내용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6개의 臟腑로만 구성된 체계일 가능성과 함께 ‘五臟六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문은 『黃帝內經』이나 『醫方類聚』 내에서는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먼저 『五臟六腑圖』의 이중본인 『黃庭內景五藏六腑圖』를 살펴보면 「膽藏圖」의 도입부분에 장부구성과 六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인다.

또한 그 五藏의 數에 膽을 더하여 六府라고 이름하며, 또한 膽도 역시 水氣를 받아서 坎卦와 道를 같이하나 같이 배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膽藏圖를 만든다.⁵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肺·心·肝·脾·腎 五臟에 膽을 합한 것을 六府라고 定名하고 있으므로 『五臟六腑圖』의 서명은 ‘五臟과 膽으로 구성된 六腑에 대하여 그림으로 설명한 문헌’이라고 풀이가 되며, 이러한 것은 『黃帝內經素問』의 六府에 대한 견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五藏과 膽으로 구성된 六府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六府의 개념은 도교문헌인 『黃庭經』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여섯 개의 장부구성에 대해서 「心神章第八」⁶⁰⁾의 내용이 心·肺·肝·腎·脾·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常念章第二十二」의 원문인 “六府修治勿令故，行自翱翔入天路⁶¹⁾”에서 ‘六府’에 대한 梁丘子⁶²⁾가撰한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註』⁶³⁾의 주석을 참고해보면, ‘六府’가 肺의 尙書府이고, 心의 元陽府이고, 肝의 蘭臺府이고, 膽의 無極府이고, 腎의 太和府이고, 脾의 太素府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五臟六腑圖』의 六府의 장부구성에 대한 견해와 같은 것이다. 또 기존의 膽·小腸·胃·大腸·膀胱·三焦를 ‘常六府’라고 규정하여 六府와 구별하였다.⁶⁴⁾

59) 又以其五藏數加膽名六府 且膽亦受水氣與坎同道 不可例祝之 故別立膽藏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서는 “右已上五藏數加膽名六腑 亦受水氣如坎同道 不可同例叙之 故別膽府圖次之”라고 되어 있다.

60) 心神은 丹元이고 字는 守靈이며, 肺神은 皓華이고 字는 虛成이며, 肝神은 龍煙이고 字는 含明이며, …… 腎神은 玄冥이고 字는 育嬰이며, 脾神은 常在이고 字는 魂停¹⁾이며, 膽神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니 六腑와 五臟의 神과 體가 정미로워지는 것은 ……(心神丹元字守靈 肺神皓華字虛成 肝神龍煙字含明 …… 腎神玄冥字育嬰 脾神常在字魂停 膽神龍曜字威明 六府五藏神體精)

61) 六府를 닦아서 과거의 舊習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정신을 保存하고 服氣를 행하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62) 『道敎大辭典』(中國道敎協會 · 蘇州道敎協會, 華夏出版社, 1994, p.400) ‘白履忠條’에 따르면 “출생연도 미상이고 729년에 사망함. 당나라 陣留浚儀(지금의 河南開封)사람이다. 古大梁城(지금의 開封市西北)에 은거하였으므로 호를 ‘梁丘子’라고 한다.”고 하였다.

63) 『道藏』, 4冊, pp.844~869

64) 按洞神經云六府者 謂肺爲玉堂宮爲尙書府 心爲絳宮元陽府 肝爲清冷宮蘭臺府 膽爲紫微宮無極府 腎爲出牧宮太和府 脾爲中黃宮太素府 異於常六府

기타 도교문헌을 살펴보면, 『上清衆經諸眞聖秘卷之七』의 「黃庭內景訣」에서는 六府眞神名の 여섯장부를 心·肺·肝·腎·脾·膽으로 말하고 있다.⁶⁵⁾ 「鎮神養生內思飛仙上法」에서 “六府眞神이 丹錦飛裙을 입고서 五臟之內의 六府之宮에 거처하고 있다”⁶⁶⁾고 하였는데, 六府는 心·肺·肝·腎·脾·膽의 여섯장부로 이루어져 있다. 胡愔보다 후대의 인물이지만 唐末五代때의 도사인 杜光庭의 「壙城集仙錄·聖母元君」⁶⁷⁾에서 쓰여진 ‘六家’의 장부구성이 肝·心·脾·肺·腎·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문헌은 모두 『五臟六腑圖』의 장부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道家에서는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진 六腑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臟腑와 신체의 內外를 出入하는 神

『五臟六腑圖』은 황정경의 영향을 받아 각 장부마다 머물러 있는 神들의 이름과 字,⁶⁸⁾ 形狀⁶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臟腑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교의학에서는 인체의 五官, 臟腑, 四肢 등에는 신들이 머물고 있다고⁷⁰⁾ 보고, 인체를 宮殿,⁷¹⁾ 樓閣, 城門, 官職 등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들은 인체에서 들고 나면서 내적으로는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내부기능을 강화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병이 생겼을 때 치유하는 것을 돕는다. 외적으로는 인체를 보호하는 衛氣를 형성시켜 외부의 邪氣나 鬼神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심지어는 불노장생이나 신선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사

65) 『道藏』 6冊, p.796 : 心神丹元字守靈 肺神皓華字虛成 肝神龍烟字含明 腎神玄冥字育嬰 脾神常在字魂停 膽神龍曜字威明 右六府眞神名

66) 『道藏』 6冊, p.798 : 心神……肺神……肝神……腎神……脾神……膽神……이상의 六府眞神은 붉은 비단으로 된 치마를 입고서 五臟의 안에 있는 六府之宮에 거처하고 있다. (心神……肺神……肝神……腎神……脾神……膽神……右六府眞神 同著丹錦飛裙 處五臟之內 六府之宮)

67) 『道藏』 18冊, 「壙城集仙錄」, 唐廣成先生 杜光庭集, pp.165~166
老君이 말하기를 내가 몸을 보건대 모두 六家之物이 권위를 빌어서 쓸 따름이다. 무엇을 六家라 합니까. 甲寅은 木神으로 骨이 되고, 甲申은 金神으로 齒爪가 되고, 甲戌은 土神으로 肌肉이 되고, 甲辰은 風神으로 氣息이 되고, 甲午는 火神으로 溫暖이 되고, 甲子는 水神으로 潤澤이 된다. 또한 木神은 肝이 되고, 火神은 心이 되고, 土神은 脾가 되고, 金神은 肺가 되고, 水神은 腎이 되고, 風神은 膽이 되어 六家가 모두 인신을 이루게 되므로 五臟六腑가 있는 것이다.
(老君曰吾觀於身 皆六家之物權借耳 何謂六家 甲寅木神爲骨 甲申金神爲齒爪 甲戌土神爲肌肉 甲辰風神爲氣息 甲午火神爲溫暖 甲子水神爲潤澤 又木神爲肝 火神爲心 土神爲脾 金神爲肺 水神爲腎 風神爲膽 六家共成人身 故有五臟六腑)

68) 肺神皓華字虛成……心神丹元字守靈……肝神龍煙字含明……脾神常在字魂庭……腎神玄冥字育嬰……膽神龍曜字威明

69) 其神形如白獸……其神形如朱雀鳥……其神形如青龍……其神形如鳳……其神形如白鹿……其神形如龜蛇

70) 『東醫寶鑑』·神門·人身神名』의 上部八景, 中部八景, 下部八景과 九宮真人, 元首九宮真人을 예로 들 수가 있다. 上部八景에는 髮神 胸神 眼神 鼻神 耳神 口神 舌神 齒神이 있고, 中部八景에는 肺神 心神 肝神 脾神 左腎神 右腎神 膽神 膈神이 있고, 下部八景에는 腎神 大腸神 小腸神 胴神 胃神 膈神 兩脇神 左陽神 右陰腎이 있다고 하였다.

71) 『道藏』 33冊의 『洞眞太上素靈洞元大有妙經』에서 머리에 있는 상단전의 九宮, 즉 明堂宮, 洞房宮, 丹田宮, 珠宮, 玉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을 예로 들 수가 있다.

람이 신들의 존재를 믿고 그들의 이름이나 字를 부르면서 服飾, 居處, 사용하는 병기 등의 모습을 인체내부와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黃庭經의 「心神章第八」에서 “晝夜存之自長生” 대한 梁丘子の 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五神의 服色을 생각에 두어 버리지 않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이다. 『仙經』에서 이르기를 ‘五臟의 氣를 가지고 있으면 五色의 구름으로 변하여 머리위에서 一身을 덮는다. 日은 앞에, 月은 뒤에 두고, 左側에는 靑龍을, 右側에는 白虎를, 앞에는 朱雀을, 뒤에는 玄武를 두는 것이 邪氣를 몰아내고 長生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⁷²⁾

『五臟六腑圖』에는 五臟과 府가 결합된 ‘肺府’, ‘心府’라는 생소한 용어가 보이는데, 먼저 「肺藏圖」에서 ‘肺府’와 관련된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肺는 魄을 생하는데, 변화하여 흰옷에 입고 병장기를 들고 있는 키가 七寸인 옥동자가 되어 肺府를 往來한다. 또 肺에는 일곱명의 동자와 열네명의 옥녀가 있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⁷³⁾

『黃帝內經』⁷⁴⁾에서의 五藏의 기능은 주로 神을 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肺藏圖」에서는 肺가 魄을 생성하고 이 魄이 다시 옥동자로 변화하여 肺府를 왕래한다고 하였다. 즉 府가 膽·小腸·胃·大腸·膀胱·三焦에 쓰여지는 것은 물건이 들고나는 창고와 같이 음식물의 출납을 주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肺에서도 肺에서 생성된 魄이 옥동자로 변화하여 臟腑의 안팎을 왕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肺府’라고 명명한 것이다. ‘肺府’라는 용어는 五臟에 갈무리되어 있던 神이 五臟 밖으로 출입을 하는 神의 개념과 결합하면서 생긴 것으로 의학이 도교의 결합을 통하여 臟腑와 神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黃庭經』에 대한 梁丘子の 注를 통해서 六府의 개념이 당나라시대에는 『黃帝內經素問』과는 다른 견해가 있었고,⁷⁵⁾ 이러한 견해가 『五臟六腑圖』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저자가 “황정의 묘리를 탐구했다”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72) 『道藏』4冊, p.849 : 依上五神服色 思存不捨 不死之道 仙經曰 存五臟之氣 變爲五色雲 常在頂上 覆蓋一身 日居于前 月居于後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即去邪長生之道也.

73) 肺生魄 化爲玉童長七寸 素衣持兵杖 往來於肺府也 一云 肺有七童子 十四玉女守之.

74) 『素問 · 宣明五氣篇 · 第二十三』: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靈樞 · 九鍼論 · 第七十八』: 五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精志也.

75) 黃庭經의 주석서중에서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註』와 『黃庭外景玉經註』는 당나라때 梁丘子가 撰한 것으로 『五臟六腑圖』보다 앞서 지어졌으며, 六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註』 「心神章第八」의 “六府五藏神體精”에 대한 注에서 “心 · 肝 · 脾 · 肺 · 腎은 五藏이고, 胃 · 大腸 · 小腸 · 膀胱 · 三焦 · 膽은 六府이다.”라고 하여 『黃帝內經素問』의 六府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둘째로는 『黃庭外景玉經註』의 “六府修治潔如素”에 대한 注에서는 膽 · 胃 · 膀胱 · 大腸 · 小腸 · 膈을 六府라고 하여 三焦가 빠지고 膈이 들어가 있다. 셋째로는 『黃庭外景玉經註』의 “清液醴泉通六府”에 대한 注에서 大腸 · 小腸 · 膽 · 胃 · 膀胱 · 命門을 六府라고 三焦가 빠지고 命門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梁丘子 한사람의 注를 살펴보아도 六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당나라시대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있는 내용이다.

4) 臟腑의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臟腑圖의 의의

『五臟六腑圖』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세밀히 묘사되어 있고 도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臟腑圖(그림)이 肺·心·肝·脾·腎·膽 여섯 개의 장부에 존재하는데, 여타의 醫學이나 道家 문헌에서 찾아보기 드문 것이다. 다만 『道藏』의 이종본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내용상 유사문헌인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四時攝生圖』 등은 『五臟六腑圖』와 유사한 편제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肺藏圖」 그림을 기재하고 있다.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圖)으로 표현하는 것은 후학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 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圖式을 만들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후학들이 수련의 이치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異端을 수련하고자 하여 마침내 후학들로 하여금 그 門을 얻게 하는 것이 드물었다. 毫釐의 차이는 천리를 벗어나므로 지금 좁은 소견들을 두루 모으고 아침하는 풍문을 없애며 여러 經書에 근거하여 살펴보아 별도로 圖式을 만들었다.⁷⁶⁾

그리고 『四庫全書 緯略卷十一』⁷⁷⁾의 「黃庭圖」에서는 수련의 이치를 그림(圖)으로 설명하는 것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하여 『黃庭經』에 대한 여러 주석보다 그림(圖)⁷⁸⁾으로 된 문헌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五臟六腑圖』를 저술한 胡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黃庭經은 吐納의 오묘함을 지극히 수련하는 것으로 務成子注와 梁丘子注와 尹真人注와 白履忠注와 李子乘注와 蔣慎修注와 超遙子注가 있고 또한 五家가 요점을 注한 것이 있으나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림(圖)만한 것이 없다. 黃庭五藏圖, 黃庭內視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補瀉圖(唐元一作女子胡愔撰), 黃庭外景圖, 五藏導引圖, 黃庭圖證訣이 黃庭經의 오묘함을 다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⁷⁹⁾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선에서 의방유취가 편찬되면서 365권에서 266권으로 산삭되는 과정에서 臟腑의 그림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방유취 편찬자들이 장부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臟腑圖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의방유

76) 慕修異端 斯起遂使後學之輩 罕得其門 差之毫釐 謬逾千里 今敢搜羅管見 竭諛聞 按據諸經 別爲圖式

77) 宋 高似孫 撰

78) 臟腑의 그림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79) 黃庭經 極修煉吐納之妙 有務成子注 有梁丘子注 有尹真人注 有白履忠注 有李子乘注 有蔣慎修注 有超遙子注 又有五家注 其要而易明者 莫如圖 有黃庭五藏圖 黃庭內視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補瀉圖 唐元一作女子胡愔撰 黃庭外景圖 五藏導引圖 黃庭圖 證訣可謂盡其妙矣

취에 인용되어 있는 臟腑圖는 장부이론에 충실함과 자세함이 도장의 유사문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정확한 양질의 판본을 조선의 의학자들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臟腑에 대한 이론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방유취의 편찬의도는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으로 이어졌음을 「五藏六腑」門의 첫머리에서 소제목으로 “의사라면 반드시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⁸⁰⁾고 강조하고, 「身形門」의 身形藏府圖와 「五藏六腑門」의 五臟圖등⁸¹⁾ 인체 내부를 묘사한 그림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여섯 개의 장부(六腑)로 구성된 의학체계

『五藏六腑圖』는 도교의 六府체계를 근간으로 도교이론과 한의학의 장상, 진단, 처방, 금기, 약물처방, 도인법 등을 결합하여 장부이론을 정립하였다.

肺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肺는 相傳之官으로 형상은 五藏의 華蓋와 같고, 六葉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3斤 3兩이고, 색은 흰비단에 붉은 빛이 내비치는 것 같다고 하였다. 肺에 대하여 상응하는 부위를 鼻, 皮毛, 涕, 嗽, 大腸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병변을 설명하였으며, 오행에 관련해서는 金에 배속하여 金宮, 西方, 白色, 庚辛, 申酉, 商聲, 辛味, 腥臭, 西岳, 太白精, 義, 怒 등과의 상응관계를 설정하고 注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鼻를 “五官중에서 肺로 통하는 기관”⁸²⁾이라 하고서 注에서는 “肺氣가 통하는 것은 鼻이다. 肺가 병들면 코가 콧과 톳을 알지 못한다.”⁸³⁾고 하여 肺의 병변이 鼻에 나타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진단에 있어서 망진법을 중시하여 얼굴색, 호흡, 땀 등을 肺의 병변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肺를 예로 들면, “肺가 병들어 열이 나면 우측 뺨이 붉고,……肺가 虛하면 기가 적어 숨을 쉴수가 없고,……肺에 바람이 들면 땀이 많고 바람을 싫어하고 때때로 기침이 나올려고 한다.”⁸⁴⁾는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장부의 생리에 따른 五味를 이용한 補瀉와 飲食禁忌를 중시여기고, 약물처방과 導引法을 통해서 장부의 질병을 제거하고 기능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五味를 이용한 補瀉는 장부의 생리기능과 병변에 따라 五味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스린 것이다. 肺를 예로 들어보면, “肺는 氣가 上逆하는 것을 괴로워하므로 급히 쓴 맛을 먹어서 泄한다. 또 肺가 病들면 거두어들이고자 하니 신맛을 먹어서 거두어들이고 매운 것을

80) 醫當識五藏六腑

81) 동의보감의 身形藏府圖와 五臟圖는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82) 五官鼻爲肺之(官) : 『五藏六腑圖』에는 ‘官’字가 없으나 『黃庭內景五藏六腑圖』의 내용을 참고하여‘官’을 補入하였다.

83) 肺氣通則鼻 肺病則鼻不知香臭也. : 『黃庭內景五藏六腑圖』에는 “肺氣旺則鼻通”이라고 되어 있다.

84) 肺病熱, 右頰赤,……肺虛則少氣不能報息……肺風則多汗畏風, 時欲咳嗽.

먹어서 補하고, 쓴 것을 먹어서 瀉하며, 차가운 것을 먹는 것을 禁한다.”⁸⁵⁾고 하였다.

飲食禁忌에서는 각 장부마다 계절별로 금해야 될 음식과 함께 장부의 병에 따라 맞는 음식을 기록하고 있다. 肺를 예로 들면, “七月에 山茱萸를 먹으면 血痢가 되고, 八月·九月에는 生薑과 肝·心·肺를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肺에 病이 있으면 기장·복숭아를 먹는 것이 좋다. 苦味는 禁한다.”⁸⁶⁾고 하였다.

약물처방은 각 장부마다 丸이나 散으로 이루어진 처방을 소개하는데, 肺는 排風散⁸⁷⁾, 心은 五參丸, 肝은 升麻散, 脾는 訶黎勒丸, 腎은 八味腎氣丸이고, 膽은 약물처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膽에 처방이 없는 것은 “膽은 肝과 同道이어서 병이 있으면 肝藏方을 사용한다”고 하는 「相肺藏病法」의 내용을 통해서 膽의 病을 肝을 다스리는 처방을 운용했음을 알 수 있다.

6) 「膽藏圖」에 나타난 특징

『黃帝內經』에서는 膽에 대하여 “中正之官”⁸⁸⁾, “凡十一臟 取決於膽也”⁸⁹⁾, “奇恒之府”⁹⁰⁾ “中精之腑”⁹¹⁾라 하여 膽의 역할을 중요시여긴다.

『五臟六腑圖』의 장부구성이 여섯 개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앞서 “五臟의 數에 膽을 더하여 六腑라고 이름한다”라는 글을 인용하여 앞서 설명하였다. 장부배열에서 의학적인 소견이라면 膽과 肝이 두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膽이 「腎藏圖」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膽도 역시 水氣를 받아서 坎卦와 道를 같이하나 같이 배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膽藏圖를 만든다.”⁹²⁾라고 하여 坎의 氣를 가지고 있는 腎의 뒤에 놓고 있다.⁹³⁾ 이것은 『醫方類聚』 「五臟門」에 인용된 다른 의서의 장부구성과 장부배열과도 구별되는 점

85) 肺苦氣上逆, 急食苦以瀉之。又曰 肺病欲收, 食酸以收之, 用辛補之, 用苦瀉之, 禁食寒。肺惡寒也。

86) 七月勿食茱萸成血痢, 八月九月勿多食薑并肝·心·肺。肺有病, 宜食黍桃, (禁)苦味

87) 肺藏病을 치료하는 처방: 肺에 病이 있으면 코가 막혀 통하지 않아 香臭를 맡을 수가 없고 코에 息血이 있다. 혹은 瘡이 생겨 피부가 가렵고 惡瘡疥癬이 생기며, 숨이 치밀어 올라 기침이 나고 콧물과 가래에 膿血이 나오는데 排風散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人蔘八分 玄參七分 防風八分 沙參五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蔘七分 苦參八分 秦膠七分 山茱萸五分
이상의 약물을 부드럽게 가루내어 빈속에 防風湯에 3錢씩 타서 먹는다.

88) 『素問·靈蘭秘典論篇 第八』: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89) 『素問·六節藏象論篇 第九』

90) 『素問·五藏別論篇 第十一』: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名曰 奇恒之府

91) 『靈樞·本輸 第二』: 肝合膽, 膽者, 中精之腑

92) 『黃庭內景五臟六腑圖』: 膽亦受水氣與坎同道 不可例祝之 故別立膽藏圖

93) 이외에도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 문헌은 『道藏』에서는 34冊의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18冊의 『太上養生胎息氣經』이다. 17冊의 『四氣攝生圖』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心-肺-腎-脾-膽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遵生八牋』의 『四時調攝牋』에서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膽-心-脾-肺-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耀仙活人心方』에서는 도인법의 내용과 장부구성은 같으나 心-肝-膽-脾-肺-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장부배열의 변화는 『五臟六腑圖』 본래 장부배열의 의미가 의학이나 다른 학문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기도 하다.⁹⁴⁾

장부를 치료하는 약물 처방이 肺·心·肝·脾·腎에는 존재하나 膽에는 없는데, 이유는 「相膽藏病法」을 살펴보면 “膽與肝同道 有病用肝藏方”이라고 하여 膽과 肝이 道를 같이하므로 膽에 병이 들면 肝藏方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膽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문헌을 참고하면 먼저 『黃庭經』 「膽部章第十四」의 “能存威明乘慶雲”에 대한 梁丘子の 注에서 膽神에 생각을 두는 것이 선도라고 단정하고 있다.⁹⁵⁾ 또 『修真十書雜著捷徑 卷之七 翠虛篇』의 「望江南」⁹⁶⁾을 살펴보면 膽의 生氣가 道家수련에서 內丹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天一이 氣를 生하는 것을 中黃이라 이름하는데, 그 氣가 膽에 갈무리되어져서 性命의 뿌리가 된다. 그 味는 苦하므로 사람의 膽의 氣味도 역시 苦하다. 예를 들면 초목의 뿌리와 꽃의 味도 역시 苦한 것과 같으니, 만물이 生氣가 아니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내단의 藥은 먼저 舌下의 구멍(竅)을 막아 아래로 膽中の 生氣와 通하게 하고, 喉舌之間으로 이르면 味가 苦한 것을 약간 느낀다. 이것은 丹氣가 流通된 후에 汞水가 凝結되어 丹을 이루는 것이다. 天地의 生氣는 봄에 싹을 틔우고, 만물이 생기를 얻은 후에야 생겨날 수 있다. 사람이 생기를 얻어서 膽에 갈무리함으로써 사람이 膽의 氣와 通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에야 內丹이 이루어져 一轉의 功을 이루게 된다.

7) 臟腑의 기능조절과 질병치료에 修養法, 吐納法, 導引法을 도입

『醫方類聚』의 「五藏門」에는 약물처방외에도 臟腑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五藏食治>, <五藏禁忌>, <五藏鍼灸>, <五藏導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五藏六腑圖』의 導引관련내용은 <五藏導引>에서 修養法, 吐納法, 導引法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五藏導引은 약물처방이나 침구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호흡법, 또는 의념법을 통하여 인체 내부에 있는 臟腑의 병을 치료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修養法, 吐納法, 導引法을 肺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4) 『醫方類聚 · 五藏門一』의 「五藏論 · 六神配五藏」에서 “膽爲膽蛇 心爲帝王監領四方 肺爲將軍應四方 肝爲尚書有流淚 腎爲列女命主之門 脾爲大夫王在四時”라고 하여 六神을 膽, 心, 肺, 肝, 腎, 脾등 6장부에 배치하는 내용이 있으나, 「五藏論」의 전체적인 장부구성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醫方類聚卷之二百 · 養性門二』의 『修真秘訣』에서 장부수양법의 구성과 배열이 肺, 心, 肝, 脾, 腎, 膽으로 되어 있어서 『五藏六腑圖』의 영향을 받은 문헌임이 확인된다.

95) 『道藏』 4卷 p.852 : 생각을 膽神에 두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것이 곧 仙道이다.(思存膽神不倦則仙道也)

96) 『道藏』 4卷 p.682-683 : 解曰 天一生氣名曰中黃 其氣藏之於膽 以爲性命之根 其味苦 故人之膽氣味亦苦 如草木之根華 其味亦苦 乃知萬物非生氣不能生也 內丹之藥 先閉舌下之竅 內通膽中生氣 至喉舌之間 微覺味苦 是丹氣流通然後 汞水凝結而成丹也 天地生氣萌之於春 萬物得生氣然後能生 人之得生氣 藏於膽 人能通膽之氣然後 內丹成就一轉之功

(1) 修養法

『五臟六腑圖』의 修養法의 특징은 첫째로 계절과 시간에 따른 臟腑의 수양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肺는 七·八·九月의 초하루와 보름시기의 해뜰 무렵(旭旦)에, 心은 四·五月의 上下弦의 이른 아침(淸旦)에, 肝은 一·二·三月의 초하루 아침(旦)에, 脾는 季夏의 초하루 아침(旦)과 四季之末의 十八日 해뜰 무렵(旭旦)에 수양법을 시행하고, 腎은 十·十一·十二月에, 膽은 겨울 삼개월동안에 시행한다.

둘째로 修養法을 수련할 때 앉은 자세로 하며, 각 장부에 따라 앉은 방위를 배합을 하고, 각 방위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념법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肺⁹⁷⁾를 수양할 때는 西面을 향하여 台宮의 白氣가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서 일곱번 삼키는 것이다. 여기서 台宮은 오행상 肺金과 相類인 서쪽을 말하며, 白氣도 西方에 속하는 金의 색을 말한다.⁹⁸⁾

셋째로 修養法은 도인법과 같이 몸을 屈伸하는 동작들은 없어서 장부의 經脈을 다스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臟腑의 神과 氣를 다스리는 것이 위주로 되어 있다.

(2) 導引法

『五臟六腑圖』의 導引法⁹⁹⁾은 주로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修養法과 같이 계절에 따라 수련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몸의 屈伸을 통하여 각 臟腑의 질병을 제거하는 것을 위주로 되어 있다.

명나라 洪武帝 朱元璋의 열여섯번째 아들인 朱權(1378-1448)의 『活人心』에는 臟腑 導引法을¹⁰⁰⁾ 心, 肝, 膽, 脾, 肺, 腎으로 순서로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부배열은 한의학의 일반적인 五臟배열인 肝, 心, 脾, 肺, 腎의 순서와 心을 중시했던¹⁰¹⁾ 朱權의 사상이 결

97) 매년 음력 七月, 八月, 九月의 초하루날과 보름날 아침 해뜰 무렵에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天鼓를 7회 두드리고, 침을 3번 삼킨 후에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키고서 兌宮의 白氣가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운을 7번 삼키고 70번 호흡할 동안 참고 숨을 쉬지 않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어 온갖 사기가 침입하지 못하고 칼날도 해치지 못하여 오래 살게 되는데, 이것을 飛仙籍이라 한다. 대개 氣를 보하고 사하여서 혼백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常以七月八月九月, 朔望旭旦, 西面坐, 鳴天鼓七, 飲玉漿三, 然後瞑目正心, 思兌宮白氣入口, 七吞之, 閉氣七十息, 則重神強體, 百邪莫向之, 兵刃不能害, 延年益壽, 名飛仙籍, 蓋所補瀉氣安息靈魄之所致哉.)

98) 다른 장부도 이와 같아서 心은 南面을 하고 앉아서 離宮의 赤色氣를 받아들이고, 肝은 東面하여 震宮의 靑氣를 받아들이고, 脾는 中宮에 앉아서 坤宮의 黃氣를 받아들이고, 腎은 西北面하여 亥宮의 黑色氣를 받아들이고, 膽은 정해진 방위가 없이 亥宮의 黑色氣를 받아들인다.

99) 肺臟導引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七月, 八月, 九月에 한다.

똑바로 앉아서 양손으로 땅을 짚고서 몸을 움추리고 등을 구부렸다가 위로 펴기를 3번한다. 이것은 肺臟의 風邪와 쌓인 피로를 없앤다. 또한 주먹을 뒤집어서 손등으로 등을 3-5번 두들긴다. 이것은 가슴에 있는 風毒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숨을 멈추고 해야 한다. 끝난 다음 한참동안 눈을 감고 침을 3번 삼키고 이를 두들기고 그만둔다. (七月, 八月, 九月行之. 可正坐, 以兩手才處地, 縮身曲脊, 向上三舉, 去肺家風邪積勞. 亦可反拳搥背上, 左右各三五度, 此法去胸臆間風毒 閉氣爲之 畢良久閉目嚙液三 叩齒而止.)

100)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01)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석사학위, 2001, pp.7~11참고

합하면서 心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놓고 木에 속하는 肝과 膽을 나란히 위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장부배열은 ‘膽도 또한 水氣를 받아서 坎卦와 道를 같이하나……별도로 膽藏圖를 둔다’는 胡愔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긴 하나, 조선에서 『新刊京本活人心法』이란 서명으로 간행된 적이 있고, 『活人心』을 초사한 이황의 학문적 영향을 살펴볼 때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醫方類聚』에서는 『活人心』의 거의 전 내용이 포함¹⁰²⁾되어 있고, 『東醫寶鑑』에서 ‘臞仙’으로 출전을 밝힌 도인법외에도, 『活人心』의 영향과 李滉이 초사한 『活人心方』¹⁰³⁾의 일화등을 살펴볼때 『五臟六腑圖』의 臟腑導引法도 널리 수련되었을 것이다.

(3) 吐納法

『五臟六腑圖』에는 臟腑를 다스리는 방법중에 吐納法이 있다. 吐納은 吐故納新으로 묵은 기운을 토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 마신다는 뜻이다. 옛 선인들은 호흡을 통해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이 없을 때에도 호흡법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춘추전국시대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莊子·刻意篇』의 「純素道之論」에서 “吹呬呼吸 吐故納新 熊經鳥申 爲壽而已矣”이라고 하여 기본적인 호흡법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로 호흡법을 통해 인체를 조절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은 南北朝시기 梁나라의 陶弘景에 의해서 그의 저서 『養性延命錄』에서 정리된다. 「服氣療病篇第四」¹⁰⁴⁾에서 『服氣經』의 내용¹⁰⁵⁾을 인용하여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은 하나이고, 입으로 내쉬는 방법은 여섯가지로 보았고, 이 여섯가지 방법은 날씨에 따라 다르고 각 내쉬는 방법이 인체

102) 『活人心』은 『醫方類聚』의 卷之二十四, 六十三, 七十, 七十三, 七十六, 八十五, 九十四, 百二十九, 百三十四, 百四十一, 百五十三, 百六十四, 百七十八, 百九十四, 百九十七, 二百一, 二百五 등에 걸쳐서 거의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103) 退溪가 『活人心』을 보고 필사한 것이며, 이 자료에 퇴계의 후손들이 '活人心方 退溪先生遺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活人心方』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活人心方』은 1973년에 退溪學研究院에서 影印한 것인데, 하권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석사학위, 2001, p.4)

104) 『道藏』 18冊, 養性延命錄, 華陽陶隱居集, pp.481~482

105) 氣를 운행시키는 것은 코로써 氣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氣를 토해내며, 미미하게 이끄는 것을 長息이라 한다. 氣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가지 방법이 있고, 氣를 토해내는 것은 여섯가지 방법이 있다. 氣를 들이마시는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吸을 말하고, 氣를 토해내는 여섯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吹, 呬, 唏, 呵, 噓, 咽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氣를 내보내는 것이다. 사람이 숨쉬는 것은 한번 내쉬고 한번 들이마시는 것에 원래 이러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長息으로 氣를 토해내는 방법을 하고자 할 때, 날씨가 추우면 吹하고 내쉬어야 하고, 날씨가 따뜻하면 呼하고 내쉬어야 한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吹하고 내쉬어서 열을 제거하고, 呼하고 내쉬어서 風을 제거하고, 唏하고 내쉬어서 煩懣을 제거하고, 呵하고 내쉬어서 氣를 내려주고, 噓하고 내쉬어서 滯氣를 흩어주고, 咽하고 내쉬어서 極한 것을 풀어준다. (凡行氣, 以鼻內氣, 以口吐氣, 微而引之, 名曰長息. 內氣有一, 吐氣有六. 內氣一者, 謂吸也. 吐氣六者, 謂吹, 呼, 唏, 呵, 噓, 咽, 皆出氣也. 凡人之息, 一呼一吸, 元有此數. 欲爲長息吐氣之法, 時寒可吹, 溫可呼, 委曲治病, 吹以去熱, 呼以去風, 唏以去煩, 呵以下氣, 噓以散滯, 咽以解極.)

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다고 보았고 호흡법을 통하여 장부의 병을 다스리고자 하였다.¹⁰⁶⁾

이렇게 여섯가지 호흡법으로 내쉬어 臟腑의 기를 조절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六字氣訣이라 하며, 陶弘景에 의해서 최초로 정리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¹⁰⁷⁾ 그러나 陶弘景의 『養性延命錄』에서는 六字氣法을 吹, 呼, 唏, 呵, 噓, 呬 라고 정리하고 각 호흡법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증을 서술하였으나, 장부와 배합에 있어서는 心-吹呼, 肺-噓, 脾-唏, 肝-呵 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幻眞先生服內元氣訣』에 이르러 肺-呬, 心-呵, 脾-呼, 肝-噓, 腎-吹, 三焦-嘻 라고하여 三焦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五氣의 五臟配屬도 이전의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¹⁰⁸⁾

胡愔에 이르러서는 『幻眞先生服內元氣訣』의 장부구성과 호흡법에서 三焦가 膽으로 바뀌어 嘻와 배합이 된다. 『幻眞先生服內元氣訣』와 비교해볼때 胡愔의 『五臟六腑圖』의 특징은 호흡법만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법이 각 장부로 나뉘어지고 장부에 관련된 의학이론 및 수양법 도인법과 결합하여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五臟六腑圖』 본문에서 臟腑吐納法을 간추려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肺를 다스리는데 呬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呬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마시는 것은 補가 된다.……心을 다스리는데 呵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呵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 마시는 것은 補가 된다.……肝을 다스리는데는 噓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噓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마시는 것은 補가 된다.……脾를 다스리는데는 呼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呼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마시는 것은 補가 된다.……腎을 다스리는데는 吹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한다. 吹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마시는 숨은 補가 된다.……膽을 다스리는데는 嘻하고 내쉬는 숨을 이용하는데 嘻하고 내쉬는 숨은 瀉가 되고 들이마시는 것은 補가 된다.¹⁰⁹⁾

그리고 『醫方類聚』의 <五藏導引>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吐納法은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적응증을 서술하고 수련시 주의할 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코로 미미하고 길게 숨을 들이 마신 다음 입으로 呬하고 내린다.

106) 예를들어 날씨가 추우면 吹하고 내쉬고 날씨가 따뜻하면 呼하고 내쉬는 것이며, 呵하고 내쉬어서 氣를 내려주고, 噓하고 내쉬어서 滯氣를 풀어준다고 하였고, 心藏이 병든 사람이 몸이 차고 뜨겁고 하면 呼와 吸 두가지 氣로써 내보내고, 肺藏이 병든 사람이 흥격이 창만하면 噓하고 숨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107) 汪茂和 編著, 『中國養生寶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下, p.1414

108) 金宇鎬, 氣功學 發達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44 참고

109) 治肺用呬 呬爲瀉 吸爲補……治心用呵 呵爲瀉 吸爲補……治肝用噓 噓爲瀉 吸爲補……治脾用呼 呼爲瀉 吸爲補……治腎用吹 吹爲瀉 吸爲補……治膽用嘻 嘻爲瀉 吸爲補……

(자기의 귀에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모두 먼저 호흡을 골라 조화롭게 된 다음에 呬하고 내린다. 肺에 病이 있을 때 呬하고 숨쉬기를 30번하고, 가늘게 呬하고 내쉬기를 10번하면 肺藏의 勞熱, 上氣咳嗽, 皮膚瘡瘍, 四肢煩疼, 鼻塞, 胸背痛 등이 없어진다. 이 방법대로 呬하고 내쉬기를 자주 하는데 병이 낮게 되면 곧 그만둔다. 지나치게 하면 몸이 손상된다.¹¹⁰⁾

胡愔의 吐納法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내쉬는 호흡이 자신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병을 치료한 예도 호흡법을 하게 되면 몸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사항은 『五臟六腑圖』의 유사문헌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말미에 六字氣訣이 胎息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해야 함을 강조한데서도 드러난다.

肺는 嘻이고, 心은 呵이며, 脾는 呼이고, 腎는 吹이며, 膽은 嘻이다. 이상 여섯가지는 六腑의 氣이고 神의 명칭이 아니다. 사람들이 쓸 때는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胎息은 아니다.

8) 『東醫寶鑑』에 대한 영향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의서인 『醫方類聚』의 「養性門」¹¹¹⁾에서 보이는 외단술¹¹²⁾과 관련된 도교이론이 후대로 갈수록 쇠퇴하고 개인적 수양을 위주로 발전해나갔다는 것은 조선시대 단학을 수련했거나 관심이 있었던 선현들이 남긴 저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¹¹³⁾. 대표적인 예로 北窓 정림이 그의 저서 『龍虎秘訣』의 서문에서 丹을 수련하는 것이 내 몸밖의 金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안의 氣息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나의 기식속에서 단을 수련함을 알지 못하여 외부로 金石에서 구하여 장생을 얻고자 하다가 도리어 요절을 가져왔으니 슬프다.¹¹⁴⁾

정림은 초기 동의보감 편찬작업에 참가한 정작의 형으로 그의 내단 사상이 동의보감의

110) 以鼻微長引氣, 以口呬之.(令自耳不得聞也) 皆先修調氣, 令和, 然後呬之, 肺有病用呬三十遍, 細呬十遍. 去肺家勞熱, 上氣咳嗽, 皮膚瘡瘍, 四肢煩疼, 鼻塞, 胸背痛, 數依法呬之, 疾差止, 過度損矣.

111) 「養性門」은 『醫方類聚』의 卷之一百九十九에서 卷之二百五까지 7卷으로 되어 있다.

112) 『醫方類聚』 「養性門」의 「寶丹要訣」이 대표적인 문헌이다.

113) 金時習의 『梅月堂集』, 鄭礪의 『龍虎秘訣』, 李之菡의 『服氣問答』, 靑霞 權克中の 『參同契註解』, 朴雲의 『衛生方』, 鄭推仁의 『頤生錄』, 鄭士偉의 『二養編』 9권, 李昌庭의 『壽養叢書類』 2권, 崔奎瑞의 『降氣要訣』, 許筠의 『閒情錄』, 洪萬選의 『山林經濟』, 徐命膺의 『參同攷』와 『周易參同契詳釋』,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葆養志」, 洪萬宗의 『旬五志』, 鄭東愈의 『晝永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4) 『해동전도록 · 침학집』, p. 195

도가수행에 대한 편찬내용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조선의 의서중에서 『醫方類聚』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면서도 도가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 있는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醫方類聚』에서 보이던 外丹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어지고 內丹이나 도인위주의 양생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身形門」과 「五臟六腑門」에 있는 養生法과 臟腑修養法·臟腑導引法의 내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身形門」에서는 <背有三關>, <搬運服食>, <按摩導引>, <攝養要訣>, <還丹內煉法>, <養性禁忌>, <先賢格言>등에서 飲食, 居處, 治心 등 일반생활에서의 養生法과 함께 按摩, 導引, 小周天등의 전문적인 修鍊法을 소개하고 있으나 신비하거나 현학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 개인적인 수양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內景篇 卷之三·五臟六腑門」에 기재된 導引法과 修養法은 6개의 臟腑, 즉 五臟과 膽에만 존재하며, 「臞仙」, 「養性書」, 「養生書」를 출전으로 밝히고 있다.¹¹⁵⁾ 『東醫寶鑑』의 「五臟六腑門」은 五臟인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과 六腑인 膽腑, 小腸腑, 胃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를 오행의 속성대로 묶어서 설명하지 않고 五臟과 六腑를 따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순서대로 導引法과 修養法을 각 장부별로 편입시켰다. 이것은 『五臟六腑圖』의 導引法과 修養法이 五臟六腑와 관련된 의학내용과 결합하면서 본래의 장부구성과 배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東醫寶鑑』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內景, 外形, 雜病의 구성은 대체로 이론-처방-단방-침구법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질병의 치료는 주로 약물과 침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간혹 導引法이나 六字氣訣같은 방법이 쓰이기도 한다. 『東醫寶鑑』의 內景, 外形, 雜病篇에서 鍼灸法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은 곳은 「身形門」과 「五臟六腑門」이다. 「身形門」은 도가수행을 통해서 治未病한다는 동양의 양생사상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已病을 치료하는 鍼灸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五臟六腑門」에서 鍼灸法이 없다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五臟六腑는 인체의 내부를 이루는 주요 장기이지만 특히 五臟은 神을 갈무리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宋代의 陳無擇은 그의 저서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病因을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나누어 三因論을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內因을 七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內因은 내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五臟을 虛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五臟은 神을 간직하고, 이 神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七情이 內因인 것이다. 따라서 五臟에 갈무리되어 있는 神을 얼마나 잘 기르느냐가 治未病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已病을 치료하는 鍼灸法보다는 導引法과 修養法을 수련하는 것을 통하여 神을 담고 있는 五臟을 다스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115) 『東醫寶鑑』에서는 출전을 臞仙, 養性書, 養生書라고 밝히고 있어 『醫方類聚』 「五臟門」의 修鍊法과 導引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東醫寶鑑』의 臟腑導引法의 내용은 『活人心』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있는 『臞仙活人心』의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活人心』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東醫寶鑑』의 修養法의 장부구성과 내용이 『醫方類聚』 「養性門」의 「修真秘訣」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養生書」·「養性書」라고 되어 있는 출전은 구체적인 서명보다는 『醫方類聚』의 「養性門」을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

『五臟六腑圖』에 鍼灸法이 없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9) 조선후기의 필사본인 『要略』의 臟腑이론에 대한 영향

『要略』은 松溪散인에 의해서 지어진 미간행 필사본으로 『五臟六腑圖』의 장부이론이 『東醫寶鑑』과 결합하여 도교의학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要略』은 조선후기 甲辰年, 늦은 봄인 음력三月에 白山아래에서 松溪散인이 지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으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문에서 “敎人要略”이라고도 한 것으로 보아 초학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입문서, 혹은 지침서를 목표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학들이 脈과 病症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일관된 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病脈藥이라는 세가지 강령이 잘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은 항상 의학의 핵심을 쉽게 깨닫게 하려는 저자의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저자의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師承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五臟六腑圖』의 도교와 의학이 결합된 여섯 장부로 구성된 의학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가계열의 의학유과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要略』은 의학이 체계적으로 전수가 되어가는 과정과 조선의 道脈¹¹⁶⁾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밝히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¹¹⁷⁾

『醫方類聚』는 성종조(1477년)에 초간할 당시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30권(266卷 264冊)밖에 간행되지 못하였고 重刊된 일도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략 18세기 후반인 정조대 이후에는 의서에 거의 인용되지 않았거나 인용되었더라도 『東醫寶鑑』을 통한 재인용에 불과하여, 이 시기 이후로는 국내에 원본이나 관련자료가 이미 거의 인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⁸⁾ 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 이후에 지어진 『要略』의 저자가 『醫方類聚』를 입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조정에서 충주사고의 『五臟六腑圖』를 가져올때 이미 민간에서는 『五臟六腑圖』가 유포되어 이를 수행하는 단학파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내려와 『東醫寶鑑』의 내용과 결합하여 『要略』이 지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要略』의 서문에서 요약의 저자가 스승으로부터 의학을 전수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준다.

『要略』은 目錄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알 수 있다. 목록은 「藏府病」, 「藏府

116) 한반도의 道脈에 대해서는 『朝鮮道敎思想研究』(車柱環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232~236)과 『海東傳道錄·靑鶴集』(李鍾殷 譯注, 普成文化社, 1998), 『한국양생사상연구』(이진수,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pp.37~41)을 참고하기 바란다.

117) 자세한 내용은 “김대형·안상우, 처음 발견된 『要略』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2004, 한국한의학논문집 10/2”를 참고하기 바란다.

118)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2000,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p.1

脈」, 「十二經表本」¹¹⁹⁾, 「傷寒」, 「內傷」, 「虛勞」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臟腑와 관련된 「藏府病」, 「藏府脈」, 「十二經表本」과 二因과 관련된 「傷寒」, 「內傷」, 「虛勞」로 대별할 수 있다.

『五臟六腑圖』의 영향은 「藏府病」에 나타난다. 「藏府病」은 본문에서는 「五臟病」이라 되어 있으며, 肺·心·肝·脾·腎·膽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五臟六腑圖』의 장부 구성 및 배열과 동일하다.

「五臟病」에는 각 장부마다 머물러 있는 神들의 이름과 字, 形狀¹²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도교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또한 『要略』은 『五臟六腑圖』의 生理, 病理, 診斷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要略』의 「五臟病」에서 肺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의학의 기본적인 상용인 鼻, 皮毛, 香臭, 顏色, 聲, 辛, 腸, 哭의 변화를 살펴 폐의 병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¹²¹⁾

肺金은 神名이 皓華이고 字는 虛戌이며 白獸와 같은 형상이다. 코의 좌측은 庚이고 右側은 辛이다. 魄, 涕, 氣를 주관한다. 피부가 늘어지고 털이 떨어지는 것은 肺氣가 먼저 끊어진 것이고, 병이 들면 香臭를 알지 못한다. 코가 막히는 것은 風이고, 코가 가려운 것은 肺에 벌레가 있는 것이다. 얼굴색이 마른 나무와 같으면 폐가 건조한 것이고, 顏色이 선명하면 폐에 병이 없는 것이다. 몸이 검은 사람은 肺氣가 미약한 것이고, 소리가 많으면 肺氣가 盛한 것이다. 자주 목이 쉬면 폐의 魄이 밖으로 분리된 것이다. 寒暑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肺萎이다. 辛味를 좋아하면 肺氣가 부족하고, 腸鳴은 폐가 옹체한 것이고, 肺邪가 自入하면 잘 운다.

이외에도 『要略』에 나타나는 학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內因七情과 外因六淫으로 구성된 二因論을 주장하면서 七情과 六淫만이 질병을 진단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陳無擇이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주장한 三因論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要略』의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과 『本草綱目』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학과 구별되는 조선후기 의학의 특징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III. 결론

119) <十二經表本>은 본문에서는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表本은 標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0) 『要略』의 「五臟病」: 肺金 神名皓華 字虛戌 形如白獸……心火 神名丹元 字守灵一名五神君子灵臺 形如蓮花……肝木 神名龍烟 字含明 形如青龍……脾土 神各常在 字魂傷 形如風化……腎水 神名玄冥 字育嬰 形如鹿兩頭……膽木 神名龍曜字威明形如龜蛇.

121) 肺金 神名皓華 字虛戌 形如白獸 鼻左庚右辛 魄涕氣 皮緩毛落肺蒸先絕 病則不知香臭 鼻塞風鼻痒者肺有虫 容色枯者肺乾 顏色鮮者肺無病 体利黑黯者肺蒸微 多聲音者肝蒸盛 多聲嘶者肺中魄難於外也 不耐寒暑者肺萎 好食辛味者肺蒸不足 腸鳴者肺壅 肺邪自入則好哭

『五臟六腑圖』의 저자는 胡愔으로 당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女道醫이고 道號는 見素女·見素女(子)이며, 太白山에서 은거하여 黃庭經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의학에 대해서는 방서를 남길 정도의 조예가 있었다.

胡愔은 道教의 六府체계를 기반으로 의학지식과 결합을 하여 새로운 의학체계를 구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五臟六腑圖』이다. 胡愔이 醫學과 道教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게 된 것은 의학과 도교가 상호 교류하고 발전하였던 당시의 도교 수행풍의 영향으로 당나라시대에 만연했던 외단술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체 내부의 臟腑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胡愔은 의학을 공부하고 도교에 입문하는 대표적인 인물에 속하며, 의학과 도교가 상호 결합된 형태의 다양한 저서를 남겼음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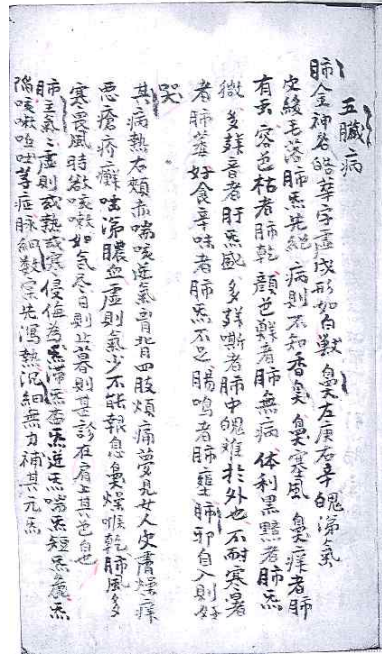


그림 6. 要略의 肺臟病

『五臟六腑圖』의 異本人 『黃庭內景五臟六腑圖』가 문헌에 따라 道家類와 醫書類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도교와 의학의 성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臟六腑圖』가 『醫方類聚』에서 道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養性門」이 아니라 臟腑의 내용을 설명하는 「五臟門」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醫方類聚』의 편찬자들이 臟腑와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중시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는 당나라 宣宗시기인 서기848년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일본 승려인 惠運이 842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847년에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가져온 문헌의 목록을 작성한 『惠運律師書目錄』에 『五臟六腑圖』의 모본이거나 동일한 모본에서 나온 판본으로 추정되는 『五藏六府圖』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五藏六府圖』의 저술시기를 847년이전으로 추정하였다.

『醫方類聚』는 모두 266卷으로 91門으로 구분되며, 각 門은 理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六腑圖』는 「五藏門」二, 三, 九에서 理論, 方藥, 禁忌, 導引의 분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道藏』本의 편제와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道藏』本의 편제가 불완전하여 서로 비교가 어렵고, 다만 『道藏』本의 내용과 편제를 서로 참고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臟腑圖(그림)-臟腑論-修養法-相臟腑病法-呼吸法-禁忌法-導引法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어 추후에 『五藏六府圖』의 원모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현재의 도교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장본이 하나의 완결된 판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底本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原文과 注가 뒤섞여 있어서 연구자들이 오류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은 原文과 注가 분리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를 통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醫方類聚』를 편찬한 학자들이 판본의 선택과 편집에 심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五臟六腑圖』는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장부로 이루어진 의학체계로 서명은 “五臟과 膽으로 구성된 六腑에 대하여 그림으로 설명한 문헌”이라고 풀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간 『東醫寶鑑』의 장부수양법과 도인법이 肝·心·脾·肺·腎·膽에만 존재함이 확인되고, 나머지 수양법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五臟六腑圖』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각 장부마다 머물러 있는 神이 장부와 인체의 안팎을 들고나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邪氣나 鬼神의 침범을 막는다고 보아 의학에서 神을 갈무리하는 五臟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五臟六腑圖』에는 臟腑의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方藥외에 吐納法·修養法·導引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臟腑修煉法의 영향을 받은 동의보감과 활인심방, 활인심을 통해서 조선의 의학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가 정신활동은 많아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서 야기되는 臟腑의 문제를 간단한 몸동작과 호흡법을 통하여 心身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치가 높다.

『五臟六腑圖』의 장부의 神을 묘사한 臟腑圖(그림)은 후학들이 장부의 이치를 깨우치기 쉽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그림을 통한 교육 방식은 『醫方類聚』에서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五臟圖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그림들이 단지 장부의 이치를 밝히는 역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의학습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필사본인 『要略』에는 『五臟六腑圖』의 영향을 받은 장부론이 동의보감의 내용과 결합되어 있고, 內因과 外因을 중시하는 二因論을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要略』의 서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승관계 통하여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조선에서 도가계열의 의학유과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 김예몽 等撰. 『醫方類聚』,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1981
歐陽修, 『新唐書』, 中華書局. 1997

- 脫脫, 『宋史』, 中華書局, 1997
-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87
- 松溪散人, 『要略』, 필사본, 조선후기
- 陳元靚 撰, 『士林廣記』, 北京 中華書局, 1998
- 胡愔, 『黃庭內景五藏六府圖』, 正統道藏 4冊,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 胡愔,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 正統道藏 6冊
- 梁丘子撰,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 正統道藏 4冊
- 明·高濂 著, 趙立勛 等 校注, 遵生八牋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 周楣聲 疏注, 黃庭經醫疏, 一中社, 1992
-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서울 :대성출판사 영인, 1995
- 남경중의학원교석,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
- 안상우·최환수, 어의촬요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 김례몽·전순의·최운 등 편찬, 로중례·리용·리사철 등 감수, 북한 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번역, 『의방유취』, 북한: 의학출판사 [서울: 여강출판사영인, 1991]
-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93
- 모리스 꾸앙, 李姬載 譯,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嚴世雲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2005
- 李鍾殷 譯注, 海東傳道錄 · 靑鶴集, 普成文化社, 1998
-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한길사, 2000
- 이진수, 한국양생사상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종은 역주, 『해동전도록 · 청학집』, 보성문화사, 1998
- 양리 마스페로, 표정훈 옮김, 불사의 추구, 동방미디어, 2000
- 崔俊植 옮김, 도교란 무엇인가, 민족사, 1990
- 于民雄 著, 권 호·김덕삼 譯, 도교문화개설, 불이문화, 2003
- 方春陽 主編, 中國氣功大成, 吉林科學技術出版社, 1989
- 朱越利, 道藏分類解題, 華夏出版社, 1996
- 盖建民 著, 道教醫學, 宗教文化出版社, 2001
- 李素平, 女神女丹女道, 宗教文化出版社, 2004
- 任繼愈, 主編, 『道藏提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홍원식 외, 『漢醫學大辭典 · 醫史文獻篇』,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 金勝東, 道教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 1996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CD-ROM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 한국
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5
-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 上海人民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年
- 中國道教協會·蘇州道教協會,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 胡孚琛主編, 『中華道教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張志哲主編, 『道教文化辭典』, 江蘇古籍出版社, 1994
-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 안상우,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한국 의사학회지, 1999
- 안상우, 『醫方類聚』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저자와 편제에 대한 고찰(한국한의학 연구원9/2(통권11호), 2003
- 김대형, 안상우, 처음 발견된 『要略』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0/2(통권 13), 2004
- 최환수·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第3卷 第1號 (通卷 第3號) 1997
- 신순식·최환수,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3/1, 1997.
- 姜世求, 醫方類聚의 養性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6
- 박현국, 道教思想이 東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李秉書, 『黃庭內景經』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金恩瑕, 道教醫學의 學術사상에 대한 연구, 대구한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金宇鎬, 氣功學 發達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朴茂仲, 韓醫學書에 보이는 導引法,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